

시론



진 호 림

(주)리얼프로텍 대표이사

지금 우리는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안전지대라 여겼던 사무직, 기획, 마케팅 분야까지 위협하며 빠르게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효율’을 명분으로 수만 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있으며, AI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대체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뉴스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수많은 청년이 채용 공고에 매달리며 마음을 졸인다. AI는 가뜰이나 좁은 취업 문을 더욱 좁히며, 청년들을 ‘불안’으로 내몰고 있다. 그들이 잃어가는 것은 단지 일자리만이 아니다. 자신감과 미래, 그리고 사회적 존재감까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삼국지의 ‘삼고초려(三顧草廬)’는 흔히 인재를 얻기 위한 유비의 지극한 정성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제갈공명의 치밀한 기획이 숨어 있다. 그는 조가에 은둔해 있는 듯 보였지만, 실은 벼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비전을 전략적으로 노출했다.

유비가 두 번이나 헛걸음하고 돌아간 과정조차 우연이 아니었다. 공명은 그 시간까지

삼고초려는 치고(致顧)였다 : AI 시대 인재의 조건

자신의 회소성을 높이고 가치를 극대화하는 심리전으로 활용했다. 결국, 유비가 그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삼고(三顧)’가 유비의 간절한 노력의 결과라면, 그 발걸을 유도한 것은 공명의 ‘치고(致顧)’, 즉 찾아오게 만드는 전략이었다.

AI 시대, 우리가 1800년 전 공명으로부터 배우는 ‘치고’의 지혜는 무엇일까? 당시의 제갈공명은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청년 백수’에 불과했다. 시대는 난세로 자정 인재들이 차고 넘쳤다. 그가 당대 최고의 CEO인 유비를 용중(隆中)의 초가로 세 번이나 찾아오게 만든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철저하게 계산된 ‘자기 증명’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치밀한 ‘평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는 사마휘, 서서, 최수평 등 당대 여론을 주도하는 인물무언서들과 벗하며 교류했다. 서서가 유비에게 공명을 추천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공명이 의도한 ‘평판 알고리즘’이 작동한 결과였다. 이는 오늘날 AI 도구를 활용한 추천 채용방식과 본질을 같이한다. 나를 증명해 줄 신뢰할 만한 ‘레퍼런스’를 확보한 것이다.

둘째, 철저한 ‘가치 심리전’을 구사했다. 유비가 찾아왔을 때 그는 일부러 자리를 비우거나, 낮잠을 자며 상대를 기다리게 했다. 이는 무례함이 아니라, 자신을 ‘아무나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인재’로 각인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포지셔닝해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한 것이다.

셋째, 압도적인 ‘콘텐츠’였다. 우여곡절 끝에 유비를 만난 자리, 그는 “저를 채용해 주

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상투적인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다. 대신 천하의 판도를 읽고 구체적인 해법을 담은 ‘천하삼분지계’라는 프레젠테이션을 펼쳤다. 유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한 것이다.

기업은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필요로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더 갈구한다. 제갈공명은 유비에게 이력서가 아닌 ‘혁신적인 사업 계획서’를 내민 것이다.

제갈량의 트레이드마크인 깃털 부채, ‘학우선(鶴羽扇)’은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다. 그것은 전장의 흐름을 읽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도구이자,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증명하는 강력한 ‘퍼스널 브랜딩’의 상징이었다.

오늘날 취준생들에게 AI는 제갈공명의 ‘학우선’과 같다. AI가 취업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시장의 흐름을 읽게 하고, 남들보다 한발 앞선 해결책을 설계하도록 돕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스펙이 다가 아니다. 변화를 배우는 속도,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치고(致顧)’의 전략이 필요하다.

“바람은 하늘이 내리지만, 그 바람을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AI라는 학우선을 손에 쥐고, 기회와 바람을 읽어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명의 지혜다.

자치칼럼



김 용 민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 회장·송원대학교 교수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인 읍·면·동은 오랫동안 ‘관 중심 행정’의 말단 구조에 머물러 왔다.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삶은 크게 달라졌지만, 행정 운영은 여전히 지시와 보고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지역별 특성, 주민 요구, 창의적 정책 실험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는 단순한 인사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획기적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민이 직접 지역의 리더를 선택하고, 그 리더가 정책을 실행하면서 주민 앞에 책임지는 구조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읍·면·동장 임용제의 실현 가능성은 이미 광주 광산구의 경험에서 확인된 바 있다. 광산구는 2014년 전국 최초로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해 기존 인사 방식의 틀을 과감히 벗어났다. 추천제는 행정조직 내부 중심의 자동 배치를 지양하고, 지역 이해도와 주민 소통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공개적으로 선발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당시 광산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후보 검증 절차를 강화

주민자치 혁신의 새로운 길,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하는 등 ‘마음행정’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읍·면·동장 임용제의 중요한 선행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민선택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순한 ‘소규모 선거’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도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 장치들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첫째, 정책 검증을 위한 공청회 제도화가 필요하다. 후보자는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 향후 2~4년간 추진할 읍·면·동 발전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주민과 전문가 앞에서 정책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주민 수요 부합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는 주민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다.

둘째,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기본 틀로 하되, 민간위원장이 주도하는 별도의 공정관리기구를 설치해야 공정성이 확보된다. 절차의 공정성은 제도 신뢰의 핵심이며,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주민참여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전체 주민 참여 투표는 하되 과열을 막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조직적 동원, 흑색 비방, 감정적 대립이 발생하면 임용제의 근본 목적이 흔들린다. 비교자료 제공, 사전 속의 토론, 후보 간 정책 발표 등 ‘심사형 투표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응모 공무원의 자발성 확보와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읍·면·동장 임용제는 우선 완전개방형이기 보다는 내부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행정 경험, 지역 이해도, 주민 소통 능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응모 요건

을 마련해야 조직 내부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승진 경로 변화 등으로 인해 조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력 관리 체계와 성과 인정 기준을 재설계하는 조직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

다섯째, 주민이 선택한 읍·면·동장에게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부여돼야 한다. 주민선택만 하고 권한이 제한된다면 제도는 형식화 되고 정책 효과는 미미해질 것이다. 따라서 임용된 읍·면·동에는 자율특화마을사업비를 지원해 동장이 제시한 계획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돌봄, 골목 경제, 생활SOC 개선 등 주민 제갈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연계한다면 제도 효과는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여섯째, 성과평가 기반 책임행정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 동장이 제시한 로드맵, 주민 만족도, 정책 실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권한과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순한 주민참여를 넘어 책임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핵심 요소다.

결국 읍·면·동장 임용제는 주민이 직접 생활권 단위의 행정과 지역 발전을 이끌 리더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함께 책임지는 주민자치 혁신 모델이다. 주민은 투표권을 넘어 정책 검증과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읍·면·동장은 주민 앞에 책임을 지는 구조로 재편된다. 이는 지방분권을 넘어 실질적 주민주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가 한국 주민자치 혁신의 새로운 기준이 되길 기대한다.

社說

한국학호남진흥원 자료 1만점 확보 의미와 과제

한국학호남진흥원이 모은 한국학 자료가 10만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개원 8년만에 이러한 성과를 거두면서 한국학호남진흥원이 호남 한국학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흥원이 그동안 모은 총 10만1천606점을 분류해 보면 고문서가 1만3천여점, 고서가 2만2천여점에 이른다. 이밖에 근·현대 문헌, 사찰 자료, 유물, 서화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복합적으로 수집돼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 자료가 73%로 가장 많고 광주 자료 약 20%, 전북 자료 44%, 서울·경기·충청 등 자료가 2% 안팎을 차지한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자료의 가치이다. 이렇게 확보하지 않았으면 훼손·멸실될 수도 있는 호남을 대표할 만한 중요 자료들이 상당수다. 진흥원 측은 보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료가 서너 점 정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중에서 1389년 무학대사가 간행한 불경사전 ‘장승법수’와 1431년 발급된 호남에서 가장 오래

된 무과 합격증서 ‘김수연 왕지’는 각각 고려 말·조선 초 불교사와 조선 초기 과거제 문서 체계를 보여주는 대표 자료로 꼽힌다.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의 왕복 편지를 묶은 ‘양선생문답첩’, 수은 강항의 일본 포로 기록 ‘간양록’ 등도 있다.

1756년 작성된 한글 조리서 ‘음식보’, 실학자 위백규의 ‘환영지’ 목판과 초안 등은 호남의 생활문화·의례·학문 풍토를 보여주는 자료로 연구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자료는 그냥 지나간 과거의 흔적이 아니다. 현재를 있게한 터전이고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이다. 특히 옛자료는 마냥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10만점을 모으는 동안 인간의 귀중한 자료가 얼마나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지 현장에서 절감했다”는 흥영기 원장의 회고는 그래서 울림이 크다.

독립 청사와 전문 소장고 없이, 전북도는 물론 광주·전남 상생 협력도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여건에서 10만점의 자료를 확보한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KTX 호남선 증편’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빛고을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KTX 호남선 증편’에 청신호가 켜졌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호남고속철도(KTX-청룡) 증편을 위한 변전소 개량 사업비 100억원이 최종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KTX-청룡은 기관차를 두 대 이상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 편성’ 시 기존 KTX-1 대비 약 1.4배의 전력의 소비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증편운행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한철)는 2023년 8월 KTX-청룡의 중련 시운전 중 정읍시 소재 노령변전소의 과부하로 전력 공급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변전소 용량 증설의 시급성이 정식으로 제기됐다.

노령변전소 부분 개량이 완료되는 2025년 5월부터 KTX-청룡의 중련 운행이 가능해져 열차 한 편당 1천석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2028년까지 호남고속선 내 노령변전소를 포함해 개량이 필요한 부용·논산·익산의 변압기 용량 증설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변전소 개량이 마무리되고 중련 운행이 본격화 되면 만성적인 좌석 부족 불편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일 하루 KTX 운행 횟수는 경부선이 115회인 반면 호남선은 55회로 절반 이하다. 공급 좌석 역시 경부선이 1일 9만9천1석으로 호남선 3만7천573석보다 2배나 많다. 주말에는 격차가 3배까지 벌어져 ‘호남 차별의 사례’로 거론됐다.

이에 시민과 지역 정치권 등은 ‘KTX 호남선 증편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빨간 민심을 고스란히 표출했다. 그 결과 지난달 17일부터 호남선 KTX 2편이 광주송정역 연장 운행에 들어갔고, 이번에 변전소 용량 증설 사업비 정부예산 반영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2015년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푸대접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KTX다. 보편적이고 평등한 국민이동권이 지켜지길 바란다. 오랜 시간 ‘불균형’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고속열차 증편은 국가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10년 숙원의 첫 걸음을 땀 만큼 철도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아침묵어는 詩

첫 기억

문태준



누나의 작은 등에 얹혀  
빈 마당을 돌고 돌고 있었지

나는 세 살이나 되었을까

별바는 흰 마당과  
까무룩 잠이 들었다 깼 때 들었던  
버들잎 같은 입에서 흘러나오던  
누나의 낮은 노래

아마 서너살 무렵이었을 거야

지나는 곁에  
내가 나를  
처음으로 언뜻 본 때는  
(시집 ‘아침은 생각한다’, 창비, 2025)

[시의 눈]

누나라는 말, 그 어감은 다정함과 친근함의 정감을 깔고 있다. 누나의 작은 등은 엄마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 정감의 원천은 따뜻함과 배려이다. 유년 기억의 공간을 주섬주섬 퍼즐로 맞춰갈 때, 마음 한

켄에 찌뚱하게 남아있는 누  
나와의 추억의 공간이 반긴  
다. 누나와의 추억의 조각,  
그 부분을 채워야 흥분과 설  
렘 속에 살았던 한없이 그리  
운 기억의 퍼즐이 완성되곤  
한다. 우리의 정서의 밑바닥  
에는 고단했지만 따뜻했던 유년을 되새김하는 아  
이론같은 노래가 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 빛/뒀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엄마야 누나  
야강변 살자.’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이다. 왜 누나는 엄  
마와 동일시될까? 그만큼 엄마에 버금갈 만한 역  
할을 누나들이 해왔다. 그 이미지에 충실했던 누  
들의 모자라지 않는 마음 씀씀이가 있었다. ‘버들잎  
같은 입에서 흘러나오던/누나의 낮은 노래’, 이 대  
목은 ‘내가 나를/처음으로 언뜻 본 때’로 연결된다.  
훗날 시인으로 이끈 누나의 나직한 노래아마로 어  
린 시절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는 소중한 첫 기억  
이었다. 그것은 놀라운 내적 만남이자 첫 발걸음이  
었다.

〈윤상현 시인〉

독자투고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무인 문구점에서 실물과 흡사한 모형 무기류와 위협성 완구가 연령 확인 없이 판매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일부 무인 문구점의 경우 KC(국가통합인증) 표시조차 없는 제품들이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진열돼 있고, 구매 연령 제한도 표기돼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손쉽게 위험 물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인 문구점 매장에겐 칼 모형 장난감, 총 모양 폭죽, 액체 슬라임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제품에서는 KC인

증마크나 사용 연령 고지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경제 또한 키오스크를 통해 이뤄져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며, 매장 내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초등학교생도 누구나 손쉽게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무기류 완구에 ‘만 14세 이상 사용’ 문구가 표시돼 있지만, 출입 제한 장치나 연령 확인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다 보니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위해 물품을 구입 하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한

무인 문구점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지역 내 매장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관리 주체와 단속 권한이 불분명해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아울러 KC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물품들까지 무분별하게 판매되면서, 법적 관리 기준의 모호함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속히 무인 판매점에 대한 단속 근거 등 규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